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 1990~2018 뉴스 빅데이터 분석*

An Analysis of News Trends for Libraries in Korea: Based on 1990~2018 News Big Data

한승희 (Seunghee Han)**

초 록

이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9년간의 도서관을 주제로 한 뉴스 기사 37,818 건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 기준에 따라 언론 보도의 양적 변화 추이를 분석한 후, 키워드 빈도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기별 보도 내용의 변화 추이와 기사에 내재된 언론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은 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과 교육적 기능, 그리고 문화적 기능에 주된 관심을 보였으며, 언론의 관심 주제 변화 추이는 사서직 처우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도서관계 이슈의 변화 추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도서관 기사 보도에 대해 취하는 주된 태도는 보도기능과 광고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quantitative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37,818 news articles that were reported on the subject of 'library' for 29 years from 1990 to 2018 in order to analyze the tendency of media coverage about 'library'. First, the quantitative change in media coverage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criteria by time, subject and media type. In addition, keyword frequency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trends of the contents of the press and the frames inherent in the pre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 showed a major interest in the library's informational, educational, and cultural functions, and the trend of the subject's interest was generally consistent with that of the library community, except for the issue of librarianship. Lastly, the main attitudes that the media take toward the reporting of library articles were the reporting and advertising functions.

키워드: 도서관, 내용분석, 프레임, 프레임링, 미디어 프레임링, 뉴스 빅데이터, 언어 네트워크 분석, 빅카인즈

libraries, content analysis, frames, framing, media framing, news bigdata, semantic network analysis, BigKinds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anshee@swu.ac.kr)

■ 논문접수일자: 2019년 8월 16일 ■ 최초심사일자: 2019년 9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2019년 9월 25일

■ 정보관리학회지, 36(3), 7-36, 2019. <http://dx.doi.org/10.3743/KOSIM.2019.36.3.00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도서관 서비스는 장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원화 사회에서 이용자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도서관계 내부에서는 도서관이 이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기관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도서관의 진화된 기능, 역할과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이를 실제 세계에 구현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도서관계 내부에서 만들어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이 도서관 외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도서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도서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신문은 사회의식의 표현수단으로서 대중의 관심과 요구와 같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김혜경, 2011).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의제설정이론(agenda setting theory)에 의하면, 미디어가 반복된 뉴스 보도를 통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이슈에 대해서 대중의 생각이나 의견을 설정한다는 것이다(정인숙, 2013). 신문은 어떤 사안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조성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대중의 인식을 다시 기사에 반영하기도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문은 한 사회의 대중들이 특정 시기에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김혜경, 2011).

뉴스 기사는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일 단위로 축적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떠한 현상에 대해 시계열을 기반으로 그 담론이나 논조, 동향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한승희, 2018). 그러므로 신문에 보도된 도서관 관련 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시기별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김지혜, 2018).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도서관 관련 기사의 분석을 통해 언론은 도서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도서관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미디어 프레임링과 뉴스 내용 분석

프레임링(framing)은 커뮤니케이션,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온 분석 방법론으로,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 1974)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 이론은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해석할 때 사용하는 준거 틀(frame)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와 관점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두산백과, 2019). 특히 인지언어학자 Lakoff(2004)는 프레임을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이라고 정의하며, 인간의 사고는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때 이용하는 핵심적 은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사회적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태도는 언어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프레임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사용되는 미디어 프레이밍(media framing)은 뉴스 미디어가 어떤 사회적 이슈나 사건의 보도 내용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프레임을 이용함으로써 수용자의 뉴스 해석과 이로 인한 여론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한다(두산백과, 2019).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에 의해 세상을 보게 되고, 미디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중 일부만을 부각시켜 보도하게 된다(김은주, 방정배, 2010). ‘선택’과 ‘배제’라는 프레이밍의 속성을 통해 언론 보도는 현실의 특정 측면만을 차별적으로 부각시키게 되므로 대중은 뉴스 프레임을 선별된 통해 주요 이슈를 인식하게 된다. 또한 같은 사건에 대한 뉴스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관점이나 결과에 대한 함의가 다르면 상이한 프레임을 가지게 되며, 이는 결국 뉴스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은혜, 김영욱, 2007).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연구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 출현한 단어를 수작업으로 추출하고 분석하는 전통적인 내용 분석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된 방법론이다(박한우, Leydesdorff, 2004). 이 방법에서는 단어 간의 동시출현빈도(co-occurrence)를 바탕으로 의미 네트워크 행렬을 만들어서

텍스트 내에서 차지하는 단어의 강도와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텍스트의 의미적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이수상, 2012).

양명철과 한혜경(2014)은 이주민 관련 보도 기사에 대한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과 2004년 두 시기에 보도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기사에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두 언론사가 이주민 관련 기사에 사용한 중심단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윤정, 손지현, 송영지, 권혜민, 박로사, 이교창, 차민학과 배병규(2018)는 우리나라 5대 일간지에 보도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사에 대해 행위자별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피해자, 행위자, 매개집단으로 구별되는 행위자에 따라 언어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언론이 갖고 있는 환경재난에 대한 경직된 태도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임을 밝혀냈다. 정원준(2018)은 2016년에 발생한 사드(THAAD) 이슈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갈등 쟁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련 뉴스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각 국가마다 뉴스기사에서 나타난 쟁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2 도서관 뉴스 보도 분석

프레임 이론에 근거하면, 도서관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이슈를 선택하고 부각시키는가에 따라 수용자의 판단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도서관에 대해 취하는 프레임을 통해 대중들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형성

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도서관을 주제로 한 뉴스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면 언론이 도서관에 대해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도서관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도서관 뉴스 보도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송승섭(1994)은 1991년 한 해 동안 생산된 7개 중앙 일간지의 도서관 관련 기사 209건을 대상으로 15개 주제로 구분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사회에 반영된 도서관 문화의 정체성과 위상을 밝혀냄으로써 도서관이 사회의 시대적 환경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 관련 기사 내용은 사회의 변화 및 요구와 유의한 관계가 성립되며, 도서관 관련 기사의 게재 빈도는 사회의 변화 요구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도서관 관련 기사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용근(2007)은 2000년 이후 신문 보도에서 도서관을 다룬 특집 기사를 대상으로 언론에서 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관중별로 분석하였다. 김혜경(2011)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10대 일간지에 보도된 도서관 관련 기사 6,306건에 대해 5년 단위로 시계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시기별로 관심이 되는 이슈가 변화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에 편중되어 기사가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김지현(2018)의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 4대 일간지에 보도된 3,065건의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2000년 초반에는 정보와 이용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나, 2006년부터는 도서관의 운영과 개관, 문화에 대해,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지역 주민과 문화에 대해 주로 다룬 것을 확인하였다.

관중별 연구로는, 이용훈(2006)은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 다룬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해 원하는 것의 핵심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활성화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아(2010)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4대 일간지에 나타난 학교도서관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초반과 후반에 기사가 편중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언론의 관심이 꾸준하지 않았으며,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기사의 비중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언론이 사회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문제는 학교도서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지혜(2018)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8년 동안 국내 8대 일간지에 보도된 347건의 공공도서관 관련 신문기사에 대해 10년 단위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 동안 언론에서 다룬 의제의 많은 부분이 인프라 확충과 같은 외연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사서에 대한 이슈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해외 연구 조사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 논문이나 도서관의 SNS를 대상으로 한 내용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다수 있었으나, 도서관을 다룬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한 내용 분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Jackson-

Brown(2013)은 유명한 사서들의 블로그를 대상으로 한 내용 분석 연구를 통해 사서들이 전문가 개발, 도서관 관련 정치적 이슈, 도서관 관련 연구 결과의 배포에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서관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하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슈의 특징과 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도서관에 대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특정 관중에 대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일부 일간지에서만 발간하는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도서관에 대한 언론 프레임의 변화와 그 내용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신문 종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보도된 뉴스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3 1990~2018년 도서관계 주요 이슈

도서관에 대한 언론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은 도서관의 변화를 이끌어온 정책이 실제로 대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언론 프레임이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도서관계에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도서관계의 주요 이슈는 그간의 우리 도서관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 제도와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정책을 바탕으로 실제 도서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은 문교부에서 담당하여 왔으며,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되고 도서관이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업무가 된 이후, 우리 도서관계는 크고 작은 정책의 변화를 통해 오늘날의 도서관 문화를 구축해왔다. 1990년에 문교부가 교육부와 문화부로 분리되고 도서관 업무가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주무부처의 변경은 도서관의 정체성이 교육기관보다는 더 포괄적인 함의의 문화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윤희운,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부로 이동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계의 정책 변화과정과 그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기 위해 윤희운(2010)의 연구와 한국도서관협회 발간 『도서관문화』에서 2000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도서관계 10대 뉴스’를 분석하여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첫번째 시기(1990~1994)는 도서관 주무부처가 문화부로 이동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이 자리 잡는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 하겠다.

두번째 시기(1995~1999)는 전자도서관 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도서관 명칭변경 논란과 국가 DB 구축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은 이슈들로 인해 도서관계와 도서관 전문직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표 1〉 1990~2018 도서관계 주요 이슈

시기	주요 이슈
1990~1994	• 문화부('90 → 문화체육부('93)) 신설: 문교부에서 도서관 주무부처 이동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94)
1995~1999	• 국가전자도서관, LG상남도서관 등 전자도서관 구축 본격화('96) • 문화체육부 → 문화관광부('98) •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 논란, 국가도서관 전자도서관 DB 구축 공공근로('99)
2000~2004	•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확산('00) • KOLIS-NET 서비스 실시('01)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휴관 문제('02) • MBC 느낌표(!)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 북스타트 운동, 김대중대통령도서관 개관('03) • 어린이도서관 건립 붐, 지역사회 중심 작은도서관 운동,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논란('04)
2005~2009	• 도서관법 전부 개정,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서울 개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확대('06)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족,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 지자체 지역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07) •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실시, 제1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및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09~'13) 발표, LCSH 독도 표기 변경 보류, 최초 지역 대표도서관(제주 한라도서관) 개관('08) •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09)
2010~2014	•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 지속 노력('10~)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 서울도서관 개관('12) • 국립세종도서관 개관('13) •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14~'18) 발표, 공공도서관 회원증 통합, 문화가 있는 날 시행, 국회도서관장 첫 외부 전문가 임명('14)
2015~현재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공공도서관 행·재정 일원화 논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시행, 국립중앙도서관 천만장서 달성('15) • 공공도서관 1천개 시대, 구글 전자도서관 합법화 판결('16) • 도서관법 시행령 사서배치기준 개선(안) 논란, 공공도서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 문제, 기업에서 도서관에 주목, 장난감 대여점에 도서관 명칭 사용 논란('17)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 문헌정보학 학술 단체 오픈 액세스 출판 선언, 한국도서관협회장 직선제('18) •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23) 발표('19)

세번째 시기(2000~2004)는 TV매체와 시민 사회 등 도서관 외부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시기이다. MBC 교양 프로그램 '느낌표'에서 기획한 '기적의 도서관'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학교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활성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와는 별개로 사서

교사 배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 문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초의 대통령 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도서관 정보화 계획 수립을 통해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체계를 확립하였다.

네번째 시기(2005~2009)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

되면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고 도서관법을 정책으로 실현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국가 도서관 정책이 그 체계를 확고히 하게 된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이전 시기에서 확산된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관심과 IT 기술의 확산을 바탕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개관하였다. 또한 관중별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다섯번째 시기(2010~2014)는 지난 시기에 마련된 국가 도서관 정책의 기틀을 바탕으로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되어 국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도서관 계획 수립과 이의 실행이 안정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작은도서관법을 제정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도서관법에 명시된 정보격차의 해소와 국민의 정보접근권 보장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과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가시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서부터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학교도서관은 전문인력 배치 등 여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도 했다.

마지막 시기(2015~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 1천 만 장서, 공공도서관 1천 개 등 도서관의 양적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관중별로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사서교사 배치기준에 논란이 있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이 지

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공공도서관 행·재정 일원화,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 배치기준 논란, 공공도서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 등 공공도서관 운영과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처우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기업에서 도서관 설립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편,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예: 장난감 도서관)가 발생하게 되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프레임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 분석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 분석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연간 보도량 변화의 추이와 함께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로 보도량의 변화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고, 도서관 뉴스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시기별 도서관에 관한 보도 내용의 변화 추이와 기사에 내재된 언론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3.1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뉴스 기사 중 제목에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수집하였다. 각 언론사마다 원문 제공 기간은 다르나, 이 연구에서는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53종의 언론사에서 생

산한 뉴스를 모두 수집하였으며, 수집 대상 언론사는 <표 2>와 같다. 또한, 뉴스 기사의 수집 기간은 도서관 정책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된 해인 1990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9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중복된 뉴스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7,818 건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보도된 많은 양의 뉴스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3.2 분석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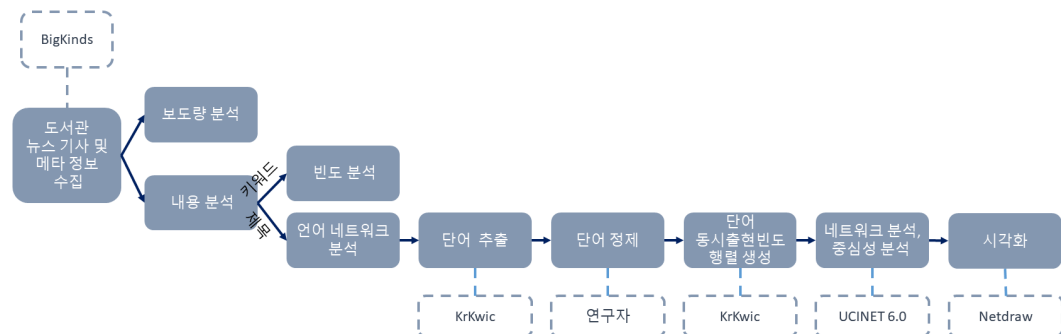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진행된 데이터 분석 절차는 <그

림 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뉴스 데이터를 대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다. 먼저 양적 분석을 위해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 기사 보도량을 분석하였고, 질적 분석을 위해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내용 분석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수집된 기사의 제목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KrKwic(박한우, Leydesdorff, 2004)을 이용하여 추출된 뉴스 제목을 대상으로 단어와

<표 2> 빅카인즈 수집 대상 언론사

유형 (수)	언론사 (가나다 순)
중앙지 (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 (8)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지역지 (28)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방송사 (4)	MBC, SBS YTN, OBS
전문지 (2)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그림 1> 분석 절차와 활용 프로그램

빈도를 추출한 후 불용어 제거, 유사어 처리, 단·복수 표현과 복합명사 띄어쓰기 통일 등 단어 정제과정을 거친 후, 일정 빈도 이상으로 출현한 핵심어를 선정하여 KrKwic의 하위 프로그램인 KrTitle을 이용, 단어 동시출현빈도 행렬을 작성하였다. 이 행렬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UCINET 6.0(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Netdraw(Borgatti, 2002)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보도량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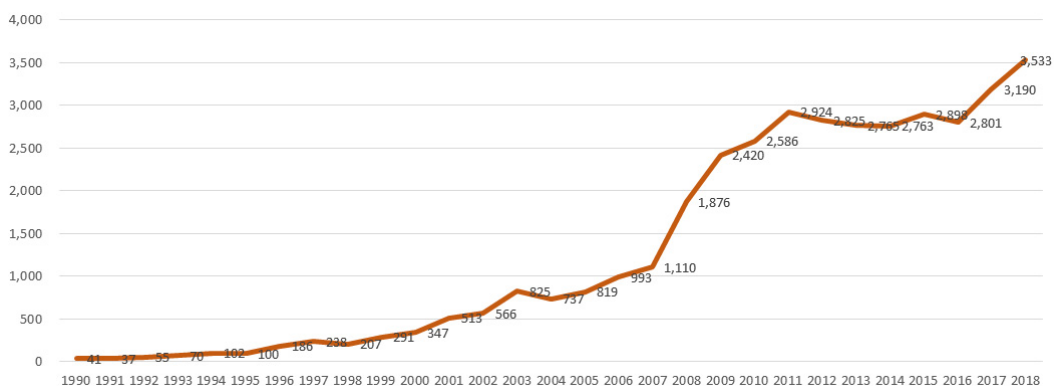
도서관에 대한 뉴스 기사의 보도량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기사 건 수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1990년에 41건에 불과했던 기사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3년(825건)에 급증하였고, 다시 2008년(1,876건)에 급증하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한 해는 2018년(3,5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단위로 보도량 변화를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양의 기사를 생산한 시기는 2010~2014년이고, 전 시기에 비해 보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시기는 2005~2009년이었다(<표 3> 참조).

<표 3> 5년 단위 보도량

시기	뉴스 건 수
1990~1994	305
1995~1999	1,022
2000~2004	2,988
2005~2009	7,218
2010~2014	13,863
2015~2018	12,422
합계	37,818

2003년의 기사 급증 이유에 대해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해에 MBC <느낌표>에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이 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도서관에 대한 기사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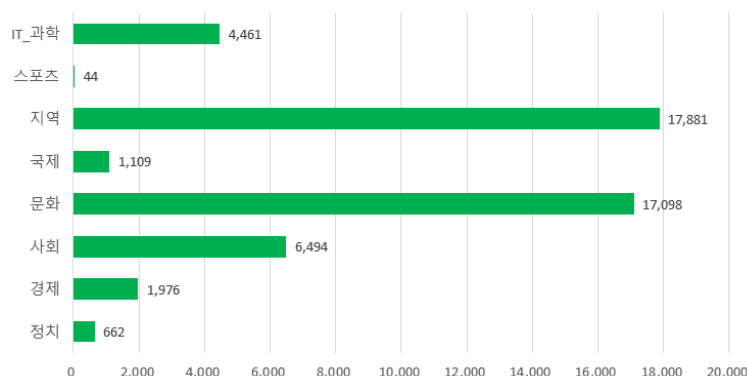
<그림 2> ‘도서관’ 주제의 연간 보도량 변화 추이

다. 실제로 2003년에 보도된 기사 중 약 10%에 해당하는 81건의 기사가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8년의 기사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빈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 시기에만 집중되어 나타난 상위빈도 키워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이 현상은 어떠한 특정한 이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8개 지역 언론사가 이 시기에 동시에 빅카인즈에 원문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 관련 기사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2018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는데, 2018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이 새로 원문제공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언론사가 이 해에 원문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보도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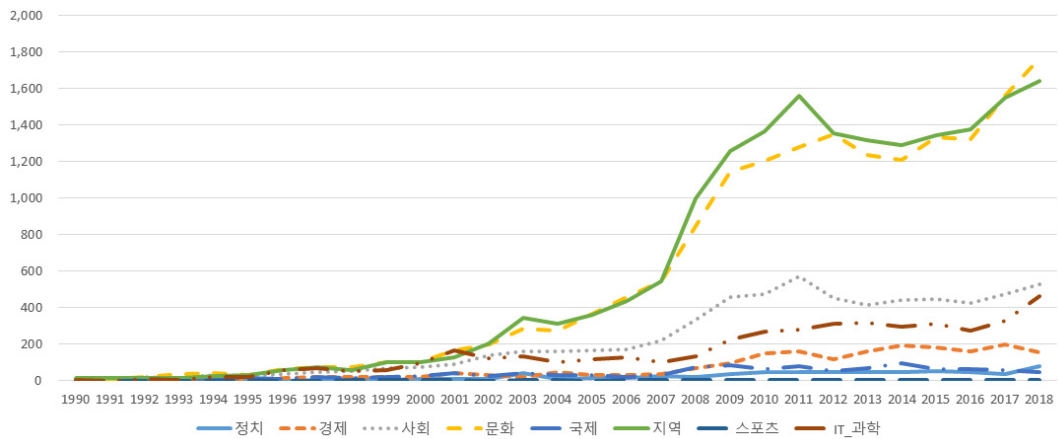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 분류 메타정보를 이용하여 주제별 보도량을 분석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뉴스에서는 '지역'과 '문화' 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사회'와 'IT_과학' 분야에서 많은 기사가 보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지역 도서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으며, '문화'와 '사회' 주제의 비중이 큰 것은 도서관이 언론으로부터 문화적·사회적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IT_과학'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은 도서관 정보화,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등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의 수용과 같은 주제가 언론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는 연간 주제별 보도량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 2>의 연간 보도량 변화 추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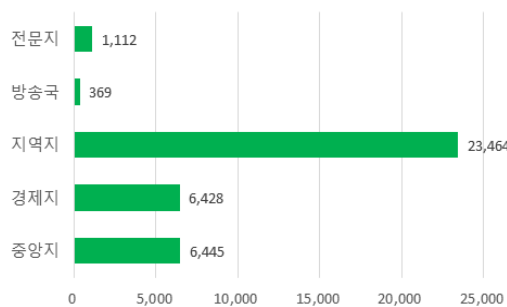
또한, 언론사 유형별로 도서관 뉴스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지가 가장 많은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별 언론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언론사 유형별로 도서관 뉴스 보도에 대한 점유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지역지와 경제지간 도서관 분야의 뉴스를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지역지의 기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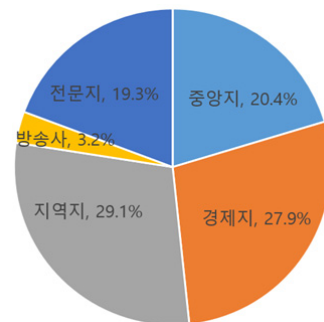
<그림 3> 주제별 뉴스 보도량



〈그림 4〉 연간 주제별 뉴스 보도량 변화 추이



〈그림 5〉 언론사 유형별 뉴스 보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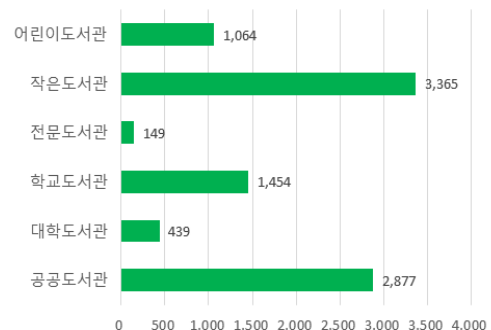


〈그림 6〉 언론사 유형별 뉴스 보도 점유율

유율이 높은 것은 〈그림 3〉의 ‘지역’ 주제 뉴스 보도량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통해 도서관 기사는 지역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관종별로 뉴스 보도량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뉴스 제목에 나타난 관종별 도서관의 기사 수를 조사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작은도서관에 대해 가장 많은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이어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그 기사 수가 상대

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관종별 뉴스 보도량

4.2 빈도 기반 내용 분석

4.2.1 뉴스 전체 분석

수집된 전체 뉴스를 대상으로 ‘빅카인즈’의 메타정보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그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이 중 상위 50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나열하면 <표 4>와 같다.

최고빈도어는 ‘도서관’이며, ‘운영’, ‘어린이’, ‘프로그램’, ‘도서’, ‘독서’, ‘이용’, ‘문화’, ‘지역’ 등의 단어가 그 뒤를 이었다. 고빈도어를 중심으로 한 내용 분석 결과, 첫째, 언론은 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도서’, ‘정보’, ‘서비스’, ‘자료’, ‘대출’)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학생’, ‘학교’, ‘교육’)과 문화적 기능(‘프로그램’, ‘공간’, ‘행사’, ‘활동’, ‘강좌’, ‘작가’, ‘체험’)에 주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도서관 운영 행위(‘운영’, ‘지원’, ‘계획’, ‘제공’, ‘선정’, ‘개최’), 도서관 설립 행위(‘개관’, ‘건립’, ‘설치’, ‘조성’)와 이용 행위(‘독서’, ‘이용’, ‘활용’, ‘대출’, ‘참여’)를 나타내는 단어가 주로 등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언론에서

는 도서관에 대해 주로 운영과 개관, 그리고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언론 보도에 나타난 주된 관심 이용자층은 ‘어린이’, ‘학생’, ‘청소년’이며, ‘주민’, ‘시민’, ‘가족’으로 표현되는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 역시 관심 이용자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4,257회(79위), ‘다문화’는 2,733회(163위), ‘노인’은 955회(627위) 등장하여 다른 이용자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용자 그룹은 어린이나 청소년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정책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학도서관’(4,309회, 77위)과 ‘전문도서관’(469회, 1,274위)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지칭하는 표현은 주로 ‘정보’, ‘자료’, ‘도서’가 사용되었으나,

<표 4> ‘도서관’ 관련 전체 뉴스 기사에 대한 상위 50위 빈도 단어 리스트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도서관	181,284	11	주민	16,240	21	서비스	11,779	31	대출	8,293	41	강좌	6,306
2	운영	34,985	12	개관	15,363	22	학교도서관	11,521	32	활용	8,204	42	서울	6,276
3	어린이	31,956	13	지원	14,716	23	제공	11,494	33	주제	7,333	43	기증	6,218
4	프로그램	25,205	14	사업	14,062	24	교육	11,262	34	활동	7,270	44	작가	5,893
5	도서	24,926	15	공간	13,969	25	학교	11,109	35	시설	7,154	45	작은도서관	5,886
6	독서	24,518	16	공공도서관	12,890	26	건립	10,800	36	조성	7,150	46	홈페이지	5,847
7	이용	20,431	17	정보	12,685	27	자료	10,578	37	이용자	6,922	47	체험	5,825
8	문화	19,968	18	계획	12,521	28	참여	9,994	38	설치	6,812	48	개최	5,805
9	지역	17,624	19	행사	12,115	29	선정	9,429	39	관장	6,799	49	청소년	5,766
10	학생	17,611	20	시민	11,828	30	사람	9,208	40	장난감	6,538	50	가족	5,737

‘장서(5,378회, 54위)’, ‘디지털(2,841회, 153위)’, ‘전자책(2,764회, 157위)’, ‘콘텐츠(2,283회, 207위)’ 등 정보자원의 다원화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기사에 등장한 것으로 보아 언론에서는 도서관이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도서관(5,209회, 60위)’, ‘사서(4,226회, 80위)’, ‘전자도서관(3,898회, 95위)’, ‘도서관주간(2,379회, 195위)’, ‘문화체육관광부(2,111회, 217위)’, ‘국회도서관(2,111회, 233위)’, ‘국립중앙도서관(1,954회, 268위)’ 등과 같은 단어가 50위 이후에 출현하였다.

4.2.2 시기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시기별 도서관 정책 및 주요 이슈(〈표 1〉 참조)와 같이 도서관계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 도서관 밖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언론이 도서관에 갖고 있는 프레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시기를 5년 단위(마지막 시기는 4년)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상위 빈도 30위에 포함된 단어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음영으로 표시된 것은 해당 시기에만 출현한 단어를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시기별 고빈도어의 분포에는 차이가 있으나, ‘도서관’, ‘운영’, ‘어린이’, ‘도서’, ‘독서’, ‘이용’, ‘학생’, ‘주민’, ‘개관’, ‘공공도서관’, ‘정보’, ‘계획’, ‘교육’(빈도순)은 전 시기에 걸쳐 출현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은 ‘독서’를 매개로 한 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도서’, ‘이용’, ‘정보’)과 교육적 기능(‘학생’, ‘교육’),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계획)’과 ‘개관’ 등 도서관 관련 정보 제공과 관심

환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관중별로는 ‘공공도서관’만이 유일하게 전 시기에서 고빈도어로 출현한 것으로 볼 때 언론은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학교도서관’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다가 2010~2014년 시기에는 출현빈도가 낮아지고 이후에는 아예 고빈도어군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이 마련되고, 2000년대 후반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대중의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는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은 단 한 차례(1990~1994년) 고빈도어로 출현하였고, ‘전문도서관’은 어느 시기에도 고빈도어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이는 언론이 모든 관중에 고른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혹은 시민사회와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분석 초기에 등장했던 단어 ‘이용자’를 대신하여, ‘어린이’, ‘학생’, ‘시민’, ‘주민’ 등 이용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다양해진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도서관 서비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자 그룹별로 세분화된 형태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용자 그룹 중 ‘어린이’ 이용자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자료’, ‘정보’는 시기가 지날수록 빈도 순위가 낮아지거나 순위권에서 사라진 반면, ‘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단어는 순위가 높아진 것을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도서관의 기본

〈표 5〉 시기별 상위 30위 빈도 단어 리스트

순위	시기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8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도서관	1,304	도서관	4,301	도서관	12,698	도서관	35,501	도서관	67,771	도서관	59,709
2		자료	221	정보	892	어린이	2,703	어린이	7,435	운영	14,156	운영	12,431
3		학생	221	자료	815	정보	1,768	운영	5,955	어린이	11,704	프로 그렘	10,754
4		공공 도서관	193	전자 도서관	735	이용	1,768	도서	4,644	프로 그렘	10,521	어린이	9,742
5		이용	190	학생	734	운영	1,708	독서	4,620	도서	9,264	독서	9,323
6		정보	183	이용	702	도서	1,686	학교 도서관	3,897	독서	9,121	도서	8,540
7		도서	173	도서	619	학생	1,616	학생	3,872	이용	7,316	문화	8,009
8		운영	162	운영	573	학교 도서관	1,581	이용	3,757	문화	7,252	이용	6,698
9		한국	144	구축	552	자료	1,526	주민	3,613	지역	6,765	지역	6,552
10		대학	121	인터넷	452	학교	1,232	프로 그렘	3,473	주민	6,213	공간	6,093
11		설치	104	대학	447	전자 도서관	1,192	문화	3,300	지원	5,870	사업	5,523
12		계획	101	공공 도서관	419	건립	1,181	개관	3,150	개관	5,765	학생	5,443
13		주민	96	계획	386	대학	1,163	지역	3,101	학생	5,725	지원	5,228
14		독서	94	제공	375	계획	1,122	학교	3,099	사업	4,781	시민	5,178
15		예산	94	학교	357	구축	1,066	지원	2,526	행사	4,706	주민	5,106
16		대학 도서관	91	이용자	336	문화	1,059	정보	2,491	공간	4,551	개관	5,064
17		건립	90	검색	332	개관	1,037	계획	2,496	교육	4,404	공공 도서관	4,748
18		어린이	86	독서	332	독서	1,028	공간	2,389	계획	4,367	서비스	4,554
19		이용자	86	사업	319	사업	1,024	공공 도서관	2,364	서비스	4,325	행사	4,489
20		문화부	85	학교 도서관	319	인터넷	979	사업	2,302	공공 도서관	4,208	참여	4,354
21		장서	85	교육	308	공공 도서관	958	자료	2,186	제공	3,993	제공	4,224
22		국립중앙 도서관	84	컴퓨터	300	주민	938	행사	2,176	학교	3,860	선정	4,113
23		서울	82	서비스	288	서비스	920	건립	2,103	정보	3,837	계획	4,049
24		개관	79	어린이	286	지역	911	교육	2,020	시민	3,784	교육	3,711
25		서울대	77	문화	281	제공	881	제공	1,954	참여	3,721	건립	3,564
26		시설	77	주민	274	지원	796	사람	1,952	건립	3,650	주제	3,537
27		지역	74	DB	272	추진	784	시민	1,799	학교 도서관	3,403	인문학	3,524
28		교육	72	개관	268	활용	782	활용	1,696	선정	3,375	정보	3,514
29		학교	72	장서	261	시민	777	서비스	1,655	사람	3,233	조성	3,103
30		구축	70	활용	251	교육	747	설치	1,453	자료	3,180	장난감	3,073

기능인 정보제공 기능보다는 문화적 기능에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2009년 시기에 처음 등장한 단어 ‘공간’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순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점차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서’와 같은 도서관 전문직과 관련된 단어는 어느 시기에도 고빈도어로 출현하지 못했다. 가장 높은 순위는 2004~2009년에 88위로 출현한 것인데, 이는 도서관계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도서관 전문 인력에 관한 문제가 도서관 외부에서는 주된 관심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1) 1990~1994년

이 시기는 도서관 정책 사업이 ‘문화부’로 이관된 시기로, ‘대학도서관’이 유일하게 높은 관심을 받은 시기이기도 하다. ‘자료’가 다른 시기에 비해 출현빈도 순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시기에 모두 고빈도어로 나타난 ‘문화’나 ‘서비스’가 고빈도어로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언론에 비친 도서관은 문화 서비스 제공 기관보다는 장서와 자료 중심의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 ‘시설’은 이 시기에만 출현한 고빈도어로, 우리 사회가 도서관 인프라 성장에 많은 관심을 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2) 1995~1999년

이 시기에는 ‘전자도서관’, ‘구축’, ‘인터넷’, ‘검색’, ‘컴퓨터’, ‘DB’ 등의 단어가 고빈도어로

처음 출현한 시기로, 도서관에서 정보기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언론이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관심을 가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외환위기로 인해 생겨난 국가도서관 DB 구축 공공근로 일자리를 통해 도서관 정보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고용에 위기가 있었다. 또한 이 시기는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으로 인한 관장직의 비전문직화 문제가 불거졌던 시기였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침체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어가 고빈도어로 출현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서직의 전문성 문제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학교도서관’, ‘서비스’, ‘문화’라는 단어가 고빈도어로 처음 등장하며 도서관 서비스가 다양화되며 확산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3) 2000~2004년

이 시기는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시기에 이어 ‘전자도서관’ 구축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서교사 배치 논란이 있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성하는 단어들이 고빈도어로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여전히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해서는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4) 2005~2009년

이 시기는 ‘프로그램’, ‘행사’가 고빈도어로 처음 등장하고 ‘문화’의 빈도순위가 높아지면서 대중이 도서관의 문화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공간’이 처음 등장하면서 정보제공 외에도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에 출범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전부개정된 도서관법을 시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으로써 도서관이 정보제공 기능 외에 도서를 매개로 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린이’ 이용자와 ‘학교도서관’에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이 시기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하고, 학교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5) 2010~2014년

이 시기에는 ‘참여’가 처음 고빈도어로 등장하고, ‘프로그램’과 ‘문화’, ‘지역’, ‘사업’, ‘행사’ 등의 단어의 빈도순위가 지난 시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이용자 참여형 도서관 문화 서비스가 활성화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빈도어의 등장은, 제1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이 실행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 도서관계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도서관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생산된 시기이기도 한데,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도서관계 내부에서는 학교 도서관 정상화와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언론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저하된 시기이기도 하다.

6) 2015~2018년

이 시기는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독서 프로그램이 ‘인문학’ 열풍과 만나 내실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실행으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각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인문학 확산의 주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의 공유경제 실현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결과로 탄생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가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곳에서 도서관의 명칭을 쓴다는 것은 도서관에 대한 저변과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으로 비정규직 사서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 문제가 도서관계 내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슈였으나 관련 단어가 고빈도어로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언어 네트워크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관련 기사의 제목에서 추출한 단어들 중 일정 빈도 이상의 핵심단어

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언어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고빈도어 분석만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시각화 과정에서 각 단어를 노드로, 단어 간의 관계를 링크로 표현할 때, 단어의 출현빈도와 단어 간 동시출현빈도를 기준으로 노드와 링크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NetDraw 상에서 이를 정규화하여 시각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언어 네트워크에서는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이며, 링크의 굵기가 굵을수록 두 단어 간의 동시출현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3.1 시기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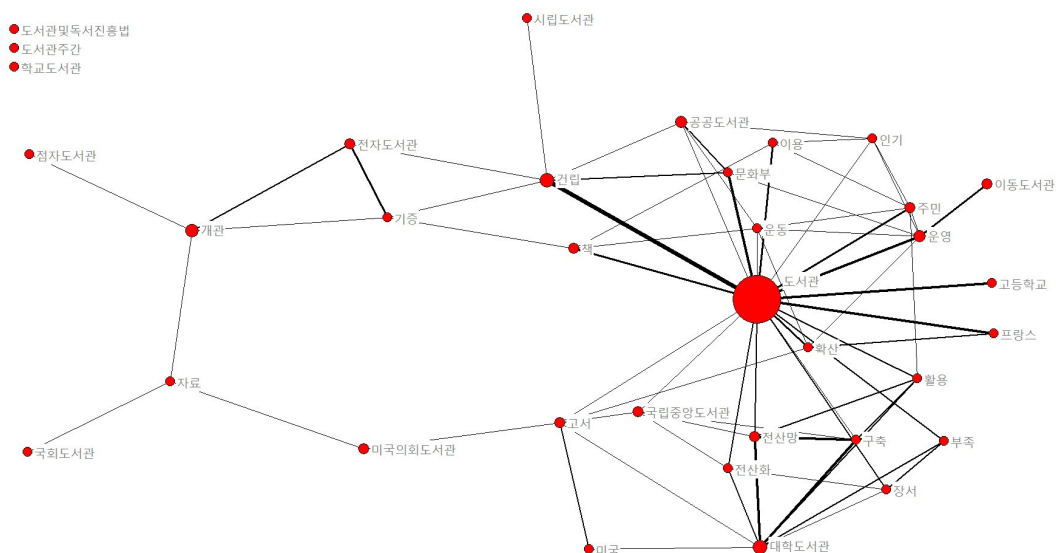
1) 1990~1994년

이 시기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부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운영,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전산망 구축과 장서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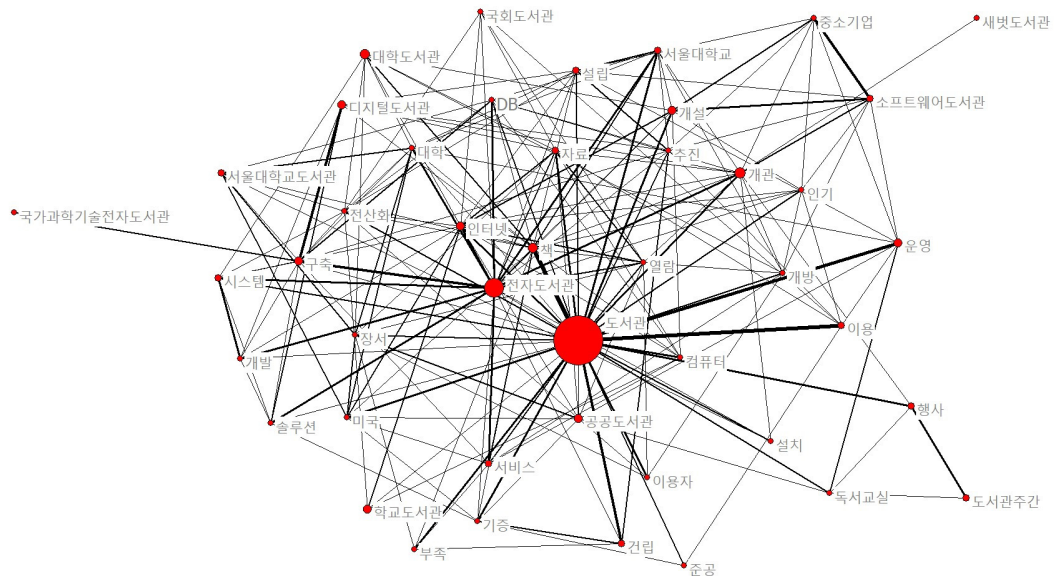
문제에 언론이 관심을 가진 시기이다. 또한 해외 토픽으로 ‘고서’ 반환과 관련하여 미국의회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언급되기도 하였으며, ‘개관’ 이슈와 관련하여 점자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이 언론보도에 노출되었다. 특히 점자도서관은 〈표 1〉의 고빈도어 리스트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는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 시기에도 장애인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언론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1995~1999년

이 시기에서는 〈그림 9〉와 같이, 대학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구축(‘시스템’, ‘디지털 도서관’, ‘전산화’, ‘인터넷’, ‘솔루션’, ‘개발’, ‘DB’ 등)과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의 구축,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 등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 적용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



〈그림 8〉 1990~1994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그림 9〉 1995~1999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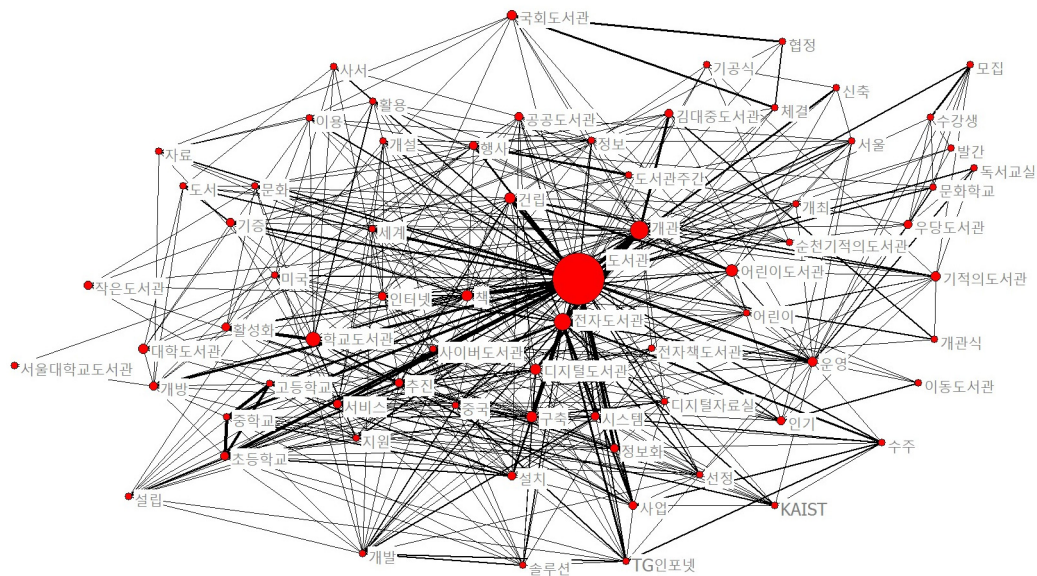
정보를 ‘책’, ‘장서’, ‘자료’, ‘DB’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함으로써 사회에서 도서관 정보의 유형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국회도서관과 서울대 도서관의 ‘개방’ 이슈와 ‘독서교실’ 및 ‘도서관 주간’과 같은 행사 안내 등 도서관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한편으로는 지난 시기에 이어 도서관과 장서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족을 언급함으로써 도서관의 양적 성장과 서비스 내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2000~2004년

이 시기에는 지난 시기에 이어 디지털도서관
과 전자도서관 개발 및 구축에 대한 이슈와 함
께 ‘사이버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전자책도서
관’과 같은 유사 개념들을 많이 다루었는데, 이
를 통해 도서관의 정보기술 수용과 고도화에

언론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지역의 도서관’, ‘작은도서관’,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도서관인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의 개관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를 통해 이 시기는 지난 시기에 언론에서 제기한 도서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이 양적 성장을 시작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의 출현은 도서관 이용자 그룹의 세분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네트워크에 처음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그림 10) 참조).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학교’, ‘독서교실’, ‘모집’, ‘도서관 주간’, ‘행사’ 등과 같은 단어와 연결된 것으로 볼 때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관심 환기를 목적으로 한 기사가 많이 보도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그림 10〉 2000~2004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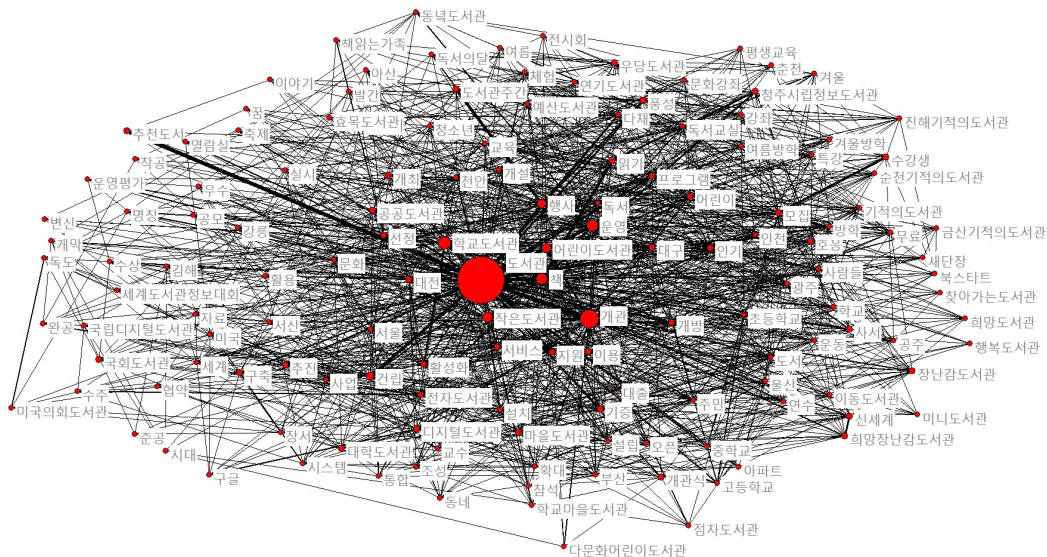
를 통해 이 시기에는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에 대중이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문화’가 네트워크에 처음 등장한 것도와 관련이 있다. 학교도서관은 지역사회 ‘개방’과 ‘활성화’의 두 가지 키워드와 연관지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특히 지역사회 개방의 주제는 대학도서관과 관련해서도 언급되었다. 이는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서’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인터넷’ 등과 관련되어 네트워크에 처음 등장하였다.

4) 2005~2009년

이 시기는 도서관 관련 기사 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표 3〉 참조)로,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의 서울 개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개관, '미국의회도서관'의 LCSH의 '독도' 명칭 변경 논란, '구글'의 전자도서관 구축 프로젝트 등 도서관계의 크고 작은 이슈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시기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점자도서관’,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등의 단어가 ‘개관’과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출현한 것으로 보아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의 양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민’, ‘청소년’ 등이 네트워크에 등장함으로써 이용자 그룹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다양해졌으며, 1990년대 초기에 등장했던 ‘점자도서관’이 이 시기의 네트워크에 다시 등장하고,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이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작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



〈그림 11〉 2005~2009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시회’, ‘문화강좌’, ‘체험’, ‘특강’, ‘평생교육’ 등의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는 도서관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문화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도서관의 기능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지역 도서관은 ‘추천도서’, ‘독서강좌’,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행사’, ‘프로그램’, ‘방학’, ‘모집’, ‘운영평가’, ‘수상’, ‘인기’, ‘호응’, ‘무료’ 등과 같은 단어와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지역 공공도서관이 지역 단위의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심환기 등 홍보와 마케팅 채널로서 언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의 네트워크에는 특정 도서관의 명칭과 지역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도서관계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프로젝트인 ‘학교마을도서관’과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의 단어와 연결되어 이 시기에 다양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축제’, ‘행사’, ‘프로그램’, ‘변신’, ‘꿈’, ‘운영평가’, ‘수상’ 등과 같은 단어와 연결된 것으로 볼 때, 학교도서관이 도서관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내용을 지역사회에 안내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서’는 지난 시기에 비해 도서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학교)과 ‘읽기’, ‘대출’, ‘모집’과 같은 업무 관련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나타났으나, 사서직 배치와 관련된 단어는 네트워크에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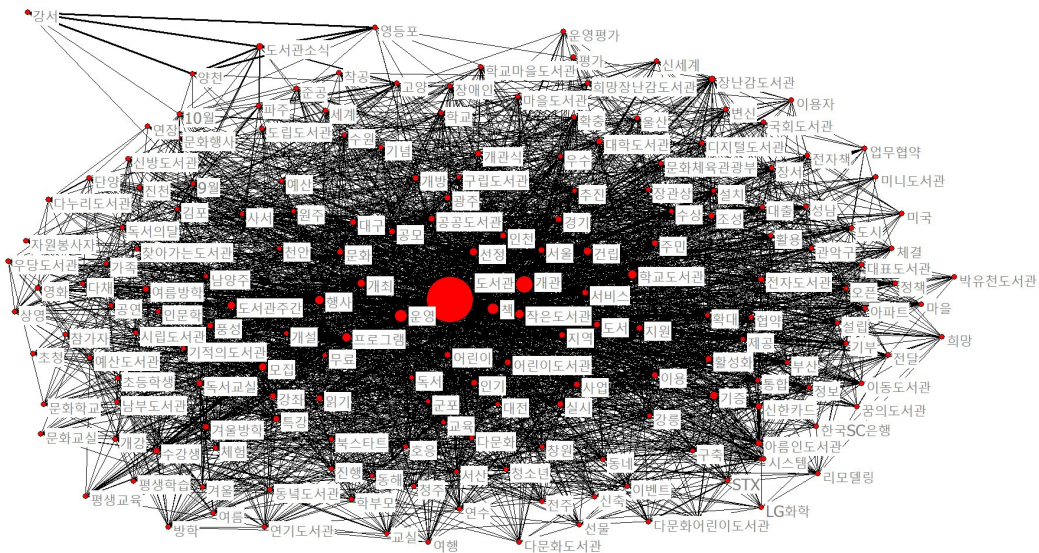
5) 2010~2014년

이 시기 역시 도서관 관련 기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이다. 우선 각종 도서관의 개관과 함께 기업이나 유명인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 설립된 도서관의 개관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관련 단어들이 네트워크에 등장하였다(〈그림 12〉 참조). 또한 ‘도서관 소식’과 특정 도서관 명칭 및 지역명, 특정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들(‘9월’, ‘10월’, ‘독서의 달’, ‘방학’ 등)이 네트워크에 등장한 것으로 볼 때, 이 시기에는 도서관이 언론을 홍보채널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서관 기사가 정보제공과 관심 환기 등의 목적으로 주로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상영’, ‘공연’, ‘문화학교’, 문화고
실, ‘평생학습’, ‘인문학’ 등 문화 및 평생학습과
관련된 단어가 지난 시기에 이어 추가적으로 네
트워크에 등장함으로써 도서관 프로그램이 다

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용자 그룹이 지속적으로 세분화되어, ‘어린이’, ‘청소년’ 외에도 ‘다문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처음으로 이 시기의 네트워크에 등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를 중심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대표도서관’의 선정과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언론에 보도된 이 시기의 도서관은 대중의 정보·문화·교육 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역의 중심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전자책’이 네트워크에 등장하면서, ‘책’, ‘도서’, ‘정보’, ‘장서’와 함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명칭이 가장 다양하게 네트워크에 출현한 시기이다. 반면, 제공 대상이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대출·반납 업무와의 공통점에서 착안한 ‘장난감 도



〈그림 12〉 2010~2014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서관'이라는 이름이 네트워크에 처음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사서'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단어 네트워크에서 각종 도서관 및 관련 기관, 관련 업무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좀 더 폭넓게 연결된 외에도 '자원봉사자'와 '학부모', '예산'과 연결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사서의 직무 중 일부가 자원봉사자와 학부모로 대체되고 이는 예산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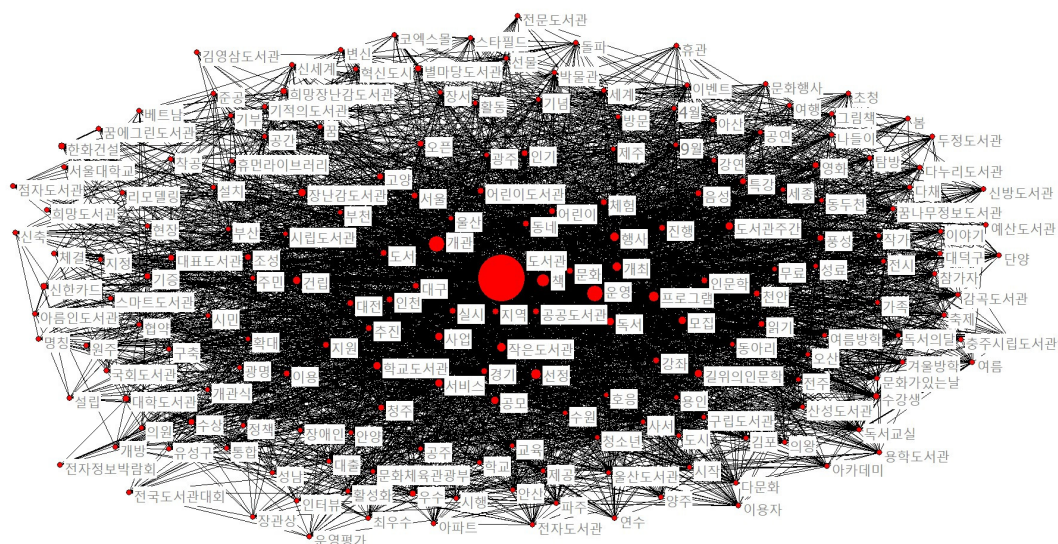
6) 2015~2018년

이 시기에는 도서관 홍보 채널로서의 언론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그림 13〉 참조). 네트워크에 '전자정보박람회'가 등장하고 이 단어가 '대학도서관'과 연결된 것을 볼 때 대학도서관 행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전 시기에 지역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언론매체 홍보활동이 이 시기에는 대학도서관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개관'은 1995~1999년 시기에 처음 출현한 이후 최근까지 계속 네트워크에서 중심 단어로 출현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여전히 양적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난 시기부터 이어진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가세하여 도서관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기업의 지원으로 도서관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대중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과연 이들이 과연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길 위의 인문학', '문화가 있는 날'과 관



〈그림 13〉 2015~2018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된 '작가', '아카데미', '여행', '나들이', '탐방' 등과 같은 단어들이 새로 네트워크에 등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 시기에는 도서관에서 독서를 기반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이 고도화되었으며, 더욱 이용자 참여형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아리', '휴먼 라이브러리'와 같은 단어가 네트워크에 등장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도서관을 정보와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간'이라는 단어가 이 시기에 등장하였는데, 이는 도서관 공간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또 다른 유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서'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단어와 연결되었다. '사서'는 이 시기의 네트워크에서 도서관 운영 주체로서 각종 도서관과 기관, 이용자, 프로그램 및 운영 활동과 업무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과 폭넓게 연결되어 있으나, 전문적으로서의 사서의 배치와 그에 따른 처우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네트워크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도서관계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논의해 온 이 문제가 도서관 외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주요 이슈로 인식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4.3.2 중심성 분석

중심성(centrality)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주요 노드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언어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단어를 찾아냄으로써 전체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및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박치성, 정지원, 2013). 이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네

트워크에 출현한 단어들의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연결중심성은 연결된 노드의 수로 노드의 영향력을 측정한다(김용학, 김영진, 2016). 언어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단어와 연결된 단어일수록 연결중심성이 높으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핵심노드가 되므로, 해당 단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기별 네트워크에 출현한 단어를 대상으로 연결중심성을 측정하여 상위 20개 단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표 6〉 참조). 음영으로 표시된 것은 20위 안에 해당 시기에만 출현한 단어를 나타낸다.

모든 시기에 걸쳐 '도서관', '운영', '책'이, 그리고 여러 시기에 걸쳐 '개관', '건립', '전자도서관', '학교도서관'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언론에서는 도서관에 대해 책, 운영과 개관 및 건립을 핵심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서관 유형별로는 전자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므로 각 시기별 네트워크에서 핵심어로서는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일부 시기에서 핵심어 역할을 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1994년에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전산망 구축(전산화)과 도서관 정책업무의 문화부 이관, 공공도서관과 장서의 부족과 그에 따른 확산의 요구 등이 언론 보도의 중심 내용으로 볼 수 있다. 1995~1999년에는 도서관에 정보기술의 수용과 관련된 용어들이 이 시기 보도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로 등장함으로써 도서관 정보화에 언론이

〈표 6〉 시기별 네트워크 출현 단어의 연결중심성 분석

순위	시기 내용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8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1		도서관	0.195	도서관	0.213	도서관	0.198	도서관	0.106	도서관	0.096	도서관	0.094
2		대학 도서관	0.063	전자 도서관	0.107	전자 도서관	0.091	개관	0.033	개관	0.029	운영	0.032
3		건립	0.051	책	0.056	개관	0.061	책	0.027	운영	0.027	책	0.022
4		전산망	0.051	인터넷	0.048	구축	0.045	운영	0.023	책	0.020	프로그램	0.022
5		구축	0.048	구축	0.042	초등학교	0.033	행사	0.019	프로그램	0.018	개관	0.021
6		운영	0.044	개관	0.037	중학교	0.032	학교 도서관	0.018	행사	0.014	선정	0.021
7		문화부	0.033	개설	0.030	학교 도서관	0.031	작은 도서관	0.015	모집	0.013	행사	0.015
8		활용	0.033	서울 대학교	0.030	건립	0.030	건립	0.011	선정	0.012	독서	0.015
9		주민	0.029	자료	0.029	책	0.030	읽기	0.010	작은 도서관	0.010	사업	0.013
10		확산	0.029	소프트 웨어 도서관	0.029	사업	0.030	도서관 주간	0.009	학교 도서관	0.009	모집	0.011
11		고서	0.026	시스템	0.028	디지털 도서관	0.026	프로그램	0.009	건립	0.009	공모	0.011
12		공공 도서관	0.022	개발	0.027	추진	0.024	어린이 도서관	0.008	도서관 주간	0.009	개최	0.010
13		전자 도서관	0.022	운영	0.026	운영	0.023	모집	0.008	서비스	0.009	도서관 주간	0.010
14		책	0.022	이용	0.026	서비스	0.023	지원	0.008	도서관 소식	0.008	길위의 인문학	0.010
15		기증	0.022	대학	0.026	고등학교	0.023	활성화	0.008	지원	0.008	문화	0.010
16		전산화	0.022	미국	0.026	시스템	0.022	풍성	0.008	수강생	0.008	작은 도서관	0.008
17		부족	0.022	디지털 도서관	0.024	설치	0.020	전자 도서관	0.007	사업	0.008	건립	0.008
18		운동	0.022	장서	0.024	정보화	0.020	추천도서	0.007	신한카드	0.007	서비스	0.008
19		이용	0.022	설립	0.023	TG 인포넷	0.020	개방	0.007	풍성	0.007	읽기	0.008
20		장서	0.022	중소기업	0.023	개발	0.020	어린이	0.007	개최	0.006	학교 도서관	0.006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2000~2004년에는 학교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2009년에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로, 이와

함께 다양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행사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에는 '신한카드'가 핵심어로 등장했는데, 이는 기업의 도서관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 소식’, ‘수강생’, ‘풍성’, ‘개최’ 등과 같이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 확산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2015~2018년에는 ‘독서’, ‘길 위의 인문학’, ‘문화’와 같은 단어들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독서를 매개로 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이 이 시기의 도서관에서 언론과 대중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나타낸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기별 주요 관심 주제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신문의 기능적 관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분석해보면 <그림 14>와 같다. 신문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보도기능, 지도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으로 나뉜다(차배근, 1997). 보도기능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지도기능은 문제제기를 통해 독자를 설득하고 계도하여 어떤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오락기능은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여가선용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광고기능은 상품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문의 네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언론이 도서관 관련 주요 관심 주제에 대해 어떠한 역할로서 보도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주로 보도와 광고기능을 중심으로 도서관 기사를 보도해 왔으며, 지도기능은 1990~1994년에 도서관과 장서의 부족 문제를 제기한 내용 외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도서관 기사에서 광고기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언론이 도서관의 주요 홍보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문제 고발자 혹은

문제 제기자의 입장에서 보도된 주제가 거의 없는 것은 도서관에 제기할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당 주제에 대해 언론과 사회가 공감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즉,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서직 관련 문제들이 언론과 사회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주요 관심사로 인식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림 14> 시기별 언론의 주요 관심 주제와 언론의 역할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간의 도서관을 주제로 한 뉴스 기사 37,818건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이 도서관에 대해 어떠한 프레임을 취해 왔는지 그 보도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양적 분석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시기

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 보도량을 분석하였으며,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뉴스 기사 본문 키워드를 이용한 빈도 분석과 제목에 출현한 단어를 이용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의 시기별 내용 변화 추이와 기사 속에 내재된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 관련 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5년 단위로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양의 기사를 생산한 시기는 2010~2014년이고, 전 시기에 비해 보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시기는 2005~2009년이다. 주제별로는 '지역'과 '문화', '사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언론사 유형별로는 지역지가 가장 많은 도서관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언론이 지역 도서관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이 언론으로부터 문화적·사회적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빈도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실시한 내용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4대 구성요소를 '장서', '이용자', '시설', '사서'라고 할 때, 언론은 '사서'를 제외한 3가지 요소에 대해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분석 과정에서 상위빈도어를 가지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분석한 결과, '운영', '개관', '이용'과 같은 행위들이 도출되었고,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책', '운영', '개관'이 전 시기에 걸쳐 핵심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은 도서를 매개로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업무를 의미하며, '개관'은 도서관의 물리적 시설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책'은 도서관 핵심 구성요소인 '장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서'는 주요 관심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언론은 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과 교육적 기능, 그리고 문화적 기능에 주된 관심을 나타냈다. 기사에서 도서관 정보를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언론은 도서관이 도서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외에도 독서를 통한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은 대중으로 하여금 도서관의 문화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셋째, 언론이 관심을 나타낸 도서관 관종에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1994년에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1995~1999년에는 대학도서관과 전자도서관, 2000~2004년에는 학교도서관과 전자도서관, 2005~2009년에는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공공도서관, 2009~2014년, 그리고 2015~2018년에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공공도서관에 언론이 주된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넷째, 도서관의 이용자 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세분화되어 정보취약계층을 아우르며 기사에 등장하였고, 언론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낸 이용자 그룹은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자 그룹의 세분화는 도서관 서비스가 세분화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며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언론은 지도기능보다는 보도기능과 광고기능의 측면에서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보

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주로 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보도기능과 광고기능을 중심으로 기사를 보도해왔으며, 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고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지도기능은 분석 대상 초기에 도서관과 장서의 부족 문제를 언급한 일부 기사에서만 나타났다. 도서관 기사의 광고로서의 기능은 도서관이 언론매체를 홍보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기업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설립한 도서관을 홍보하면서 극대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한 언론의 관심 주제 변화 추이는 대체적으로 도서관계 이슈의 변화 추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도서관계 내부에서 마련한 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대중의 인식 변화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서관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처우 문제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인데,

이는 언론이 이 문제를 지도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서직 또는 사서교사 처우의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쉽게 풀리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도서관계 내부적으로는 사서직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충분히 공감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여론 형성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약 30년 동안의 뉴스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빈도분석 및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서관 분야의 뉴스 보도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도서관과 관련된 행위자를 식별하고 각 행위자별 관점에서 언어 네트워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서관과 관련된 행위자별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고, 이 결과는 도서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아 (2010). 신문에 보도된 학교도서관 기사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교육전공.
- 김용근 (2007). 신문 보도를 통해 본 우리 도서관의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295-314.
<https://doi.org/10.16981/kliss.38.2.200706.295>
- 김용학, 김영진 (2016). 사회연결망 분석, 제4판. 서울: 박영사.
- 김은주, 방정배 (2010). 뉴스통신사 선거보도 뉴스프레임 변동 연구. 한국방송학보, 24(5), 90-125.

- 김지현 (2018).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219-236.
<http://dx.doi.org/10.16981/kliiss.49.201812.219>
- 김지혜 (2018). 공공도서관 관련 뉴스 프레임 분석: 국내 일간지 기사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 김혜경 (2011). 도서관에 대한 사회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두산백과 (2019). <http://www.doopedia.co.kr>
- 박은혜, 김영옥 (2007). 언론 프레임과 이미지 회복 전략이 공중의 위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38), 73-118.
- 박치성, 정지원 (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정부학연구, 19(2), 73-108.
- 박한우, Leydesdorff, L.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8.
- 빅카인즈 (2009). <http://www.bigkinds.or.kr>
- 송승섭 (1994). 한국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도서관문화, 35(2), 15-46.
- 양명철, 한혜경 (2014). 한국미디어의 이주민보도 프레임 분석. 동북아 문화연구, 41, 71-89.
<https://doi.org/10.17949/jneac.1.41.201412.004>
- 윤희운 (2010). 공공도서관경영론. 대구: 태일사.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용훈 (2006). 언론보도를 통해 본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 분석: '기적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제1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81-288.
- 정원준 (2018). 사드(THAAD) 이슈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갈등 쟁점의 변화 추이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20(3), 143-196.
- 정인숙 (2013).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차배근 (1997). 커뮤니케이션학개론(하). 서울: 세영사.
- 최운정, 손지현, 송영지, 권혜민, 박로사, 이교창, 차민학, 배병규 (2018). 환경재난 이슈에 대한 행위자별 언어네트워크 비교 분석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1(1), 87-115.
<https://doi.org/10.22417/dpss.2018.4.11.1.87>
- 한승희 (2018).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우리나라 언론의 기록관리 분야 보도 특성 분석: 1999~2018 뉴스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5(3), 41-75.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3.041>
- Borgatti, S. P. (2002). NetDraw: graph visualization software. Harvard: Analytic Technologies.
- Borgatti, S. P., Everett, M. G., & Freeman, L. C. (2002). Ucinet 6 for Windows: Software for

- social network analysis.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son-Brown, G. M. (2013). Content analysis study of librarian blog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other uses. *First Monday*, 18, 2-4, Retrieved from <https://firstmonday.org/ojs/index.php/fm/article/view/4343/3415>
- Lakoff, G.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the essential guide for progressives*. Vermont: Chelsea Green Publishing.
- 유나영 옮김. (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서울: 삼인.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igKinds (2019). <http://www.bigkinds.or.kr>
- Cha Bae-Keun (1997). *An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ha)*. Seoul: Seyoungsa.
- Choi, Yun-Jung, Son, Ji-Hyeon, Song, Young-Ji, Kwon, Hye- Min, Park, Ro-Sa, Lee, Gyo-Chang, Cha, Min-Hak, & Bae, Byeong-Gyu (2018). Actor specific language network analysis on environmental disaster issues: Focusing on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11(1), 87-115. <https://doi.org/10.22417/dpss.2018.4.11.1.87>
- Chung, InSook (2013). *The theory of commun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Chung, Wonjun (2018). Keyword and topic analysis on the THAAD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ased on a time-Series topic modeling an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0(3), 143-196.
- Doosan Encyclopedia (2019). <http://www.doopedia.co.kr>
- Han, Seunghee (2018). An analysis of news report characteristics o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for the press in Korea: Based on 1999~2018 News Big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3), 41-75.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3.041>
- Kim, Eun-Joo, & Bang, Jung-Bae (2010). Change of news frames in news agency's reports on elections: Focusing on yonhap news agency's reports on the presidential election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4(5), 90-125.
- Kim, Hae-Kyung (2011). *A study on the social recognition of libra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orea.

- Kim, Ji Hye (2018). Frame analyses of public library news: Focused on semantic network analysis in daily newspap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Kim, Ji-Hyun (2018). An analysis of the social image of library: Focused on the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219-236.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12.219>
- Kim, Yong-Gun (2007). Library issues reported on press releas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295-314. <https://doi.org/10.16981/kliss.38.2.200706.295>
- Kim, Yong-Hak, & Kim, Young-Jin (2016). *Social network analysis*, 4th ed. Seoul: Parkyoungsa.
- Kim, Young Ah (2010). An analytical study of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school librar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Lee, Soo-Sang (2012). *Network analysis methods*. Seoul: Nonhyung.
- Lee, Yong-Hun (2006). Analyzing the social perceptions and needs of libraries in the media: Focusing on the 'Miracle Library'. *Proceedings of the 13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288.
- Park, Chisung, & Chung, Chiweon (2013). Text network analysis: Detecting shared meaning through socio-cognitive networks of policy stakeholders.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19(2), 73-108.
- Park, Eun-Hae, & Kim, Yung-Wook (2007). The effects of media framing and image restoration strategies on the public's crisis perception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38), 73-118.
- Park, Han Woo, & Leydesdorff, L. (2004). Understanding the KrKwic: A computer program for the analysis of Korean tex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8.
- Song, Sung-seob (1994). An analytical study on articles related to 'library' in Korean newspapers. *Library Culture*, 35(2), 15-46.
- Yang, Myungcheol, & Han, Hyekyoung (2014). Frames on migrants constructed by Korean media: Focusing on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articles of Korean newspapers (Chosunilbo and The Hankyore).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41, 71-89. <https://doi.org/10.17949/jneac.1.41.201412.004>
- Yoon, Hee-Yoon (2010). *Public library management*. Daegu: Taeilsa.